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조재현



2년 전 소극장에서만 10만 관객을 동원했던 '민들레 바람피어'를 오는 21일부터 다시 공연한다.

것이다. 조연급이었으나 신인인 나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배우 초년생, 키 높이의 기적 이룬다

지에 운동화 신은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서로 얼굴을 보며 작은 소리로 뭐라고 대화를 나누시는 거다.

떨 수 없었다. '아! 키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구나' 생각하니 갑자기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그대도 얼굴은 되는데 키는 어떻게 좀 안 될까요?'라고 속에서만 외치고 있었다.

를 신고 그 안에 뭔가를 넣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것저것 넣고 실험하다가 합판을 잘라서 차곡차곡 쌓아 5cm 났었다.

서로 중견 연기자라 되어 다시 만났다. 나는 배우 생활을 하며 내가 나태하거나 초심을 잃을 것 같을 때 항상 키 높이 신발을 생각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복지 논쟁' 건설적 정책대결 이뤄져야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복지를 내세워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쏟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 이 같은 복지논쟁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국가 경제는 성장하면 서도 국민생활은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서 국가 지속성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을 고려할 때 복지문제는 국가 미래에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시민참여예산제' 의미 크다

광주시의회가 올해부터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장이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토록 한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골자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보편적 무상 복지 방안은 전체 추가 재원이 43조 원 이상 더 필요하다 국가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광국의 복지 논쟁은 정책대결이 아닌 정치선전의 장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광국적 포퓰리즘'이니 하며 색깔론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이제라도 광국의 복지 논쟁은 정책대결이 아닌 정치선전의 장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광국적 포퓰리즘'이니 하며 색깔론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의료 칼럼

김종협



며칠 전 '현재 1971년생 남자 50%가 94세까지 산다'라는 신문 기사를 유심히 본 적이 있다.

등 주요부위를 건드리는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최소의 잇몸절개로 시술 시간을 단축해 시술 후 여러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노년기 건강한 치아관리

이 노출되면서 치근마모로 인한 시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노년기의 치주질환은 별다른 증상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 시 미리 발견해 치료해 주지 않으면 결국 치아를 상실할 수 있다.

한 부담을 여러 가지로 덜어 주고 있다. 물론 전신질환 환자의 경우 내과 전문과의 상담 후 최소한의 절개라도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어 아스피린 등의 약물투여를 조절하고, 당뇨환자의 경우에도 당 수치 조절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안전하다.

기고

송광운



광주시 북구 문화동 시화문화마을은 전국 최고의 마을 공동체 모델을 창출해 낸 북구민의 자부심이자 참여와 소통의 아이콘이다.

시화문화마을의 성공은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여서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닌다. 장기간에 걸쳐 주민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며 주민자치운동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것은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북구의 브랜드까지 상승시키는 시너지효과를 동반한다.

'소통과 참여' 진화하는 시화문화마을

원화를 결성, 독자적인 마을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냈다. 2000년부터 주민들은 사막한 시멘트 담장과 방울벽을 그림과 글귀로 장식하고 문패를 달아주는 등 마을에 변화를 꾀했다.

도시 이전 부지의 민주 및 인권공원 조성 등 풍부한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현피' 싸움 사회문제화 ... 지도·교육 절실

인터넷에서 시비를 벌이다 실제로 만나 싸우는 소위 '현피' 싸움이 자주 벌어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과 가상세계를 혼동하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기 때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현빈 효과' (Hyunbin Effect)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about the benefits of a certain product.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